

보도시점 2026.9.11.(금) 11:10 배포 2026.9.11.(금) 10:30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조사조정국 조사1과	책임자	과 장	윤여진 (02-2100-3111)
		담당자	조사관	고명석 (02-2100-3119)
			조사관	곽영조 (02-2100-3113)
			조사관	도혜원 (02-2100-3117)

